

30년 넘은 여수 오천산단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2023까지 375억 투입 정비

도로 확포장·공동창고 설치·공원·직장어린이집 건립

여수시 오천산단이 조성된 지 30여년만에 국가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기반시설 확충 등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수산물가공식품을 주력 생산하는 여수오천일반산업단지가 지난 28일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제4차 '노후재생산업단지' 공모사업 대상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 주도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조성한 지 20년 이상의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를 지구로 지정하고, 국비지원으로 노후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되면 산단의 주요 업종을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

환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시설확충은 물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보강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재생사업 대상지는 여수 오천일반산업단지,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원주 문막일반산업단지 등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3곳과 경기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 노후국가산업단지 2곳이다.

여수시 오천산단은 앞으로 총 375억원이 투입돼 산단 도로 확·포장과 재고보관용 공동 냉동·냉장창고 설치, 공용주차장 건립 및 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개선된다.또 웰빙지원센터 개소와 근로자 기숙사·공동 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여수시는 앞서 1980년대 조성된 오천일반산업단지의 재생을 위해 국토부와 산자



위성에서 본 오천산단.

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했으며, 전국 9개 산단과 치열한 경쟁한 끝에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실제 오천산단은 조성된지 30년이 넘는 노후단지인데다, 중소 입주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그동안 환경정비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수시는 앞으로 국토부와 산자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쾌적하고 효율성이 뛰어난 웰

빙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한 세부 실시계획을 올해 내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시 담당 부서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지역 정치권의 협조, 시민들의 지역사랑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물"이라면서 "오천산단 재생사업 성공을 통해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3년 12월 문을 연 오천지방산업단은 지난 2015년 기준 수산물 가공과 어유(魚油)공장, 닭 가공공장 등 51개 업체에서 74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산물가공식품분야 총 생산량은 전국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GS칼텍스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노·사·정 합동 홍보 활동

여수시가 지역대표기업 GS칼텍스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캠페인에 나섰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GS칼텍스(대표이사 허진수 회장)와 함께 지난 31일 GS칼텍스 여수공장 등에서 '노·사·정 합동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GS칼텍스 이두희 부사장 및 김재오 노조위원장, 임종길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 협력사 사장단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대형비 작업에 들어간 GS칼텍스 여수공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주 시장과 이 부사장 등 참석자들은

안전 문구를 새긴 어깨띠를 두르고 GS칼텍스 제2 여수공장 출근자들에게 홍보 전단지과 다과를 나눠주며 안전 의식을 강조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대형비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14일 삼남석유화학을 시작으로 지난 21일 LG화학 SM공장 안전캠페인 개최 등 앞으로도 여수산단 주요 사업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통과 여수시 산단환경사업단장은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시스템은 물론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수산단 임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안전 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전남연극제 7일 개막

13일까지 진남문화회관

전남 연극인의 최대 축제인 '제35회 전남연극제'가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여수 진남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올해 전남연극제는 '즐거는 연극, 소리치는 바다'를 주제로 도내 7개 시·군 대표 극단이 참여한다. 이들은 일상에서의 사랑과 가족, 이웃 간의 애정과 갈등을 다룬 다양한 작품들을 무료로 선보일 예정이다.

7일 개막식에는 여수 극단 파도소리가 '꿈모닝 시어터'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른다. 이번 연극제의 공연일정은 ▲8일 '아버지와 나와 흥매화'(목포 극단 선창) ▲9일 '광'(순천 극단 봉치들) ▲10일 '아버지와 나와 흥매화'(광양 극단 백운무대) ▲11일 '엄마의 강'(나주 극단 예인방) ▲12일 '해남 강강술래'(해남 극단 미암) ▲13일 '마술가게'(무안 극단 뽕) 등이다.

이번 전남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극단은 전남도 대표로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하게 된다.

강기호 (사)연극협회 전남지회장은 "전남연극제는 전남 연극인의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번 연극제를 통해 연극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작품성도 높이고 나아가 연극 문화예술의 저변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돌산을 작금마을 갯벌 개방 '영트는 날' 체험행사 북적



여수시 돌산을 작금마을이 최근 개최한 갯벌을 개방하는 '영트는 날' 체험행사에 주민과 관광객 등 400여명이 참여해 개조개, 바지락, 미역, 해삼 등을 채취하고 있다. 여수시 평사마을도 이번달내에 '영트는 날'을 개최 예정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신중하세요" 당부

여수시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시민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A지역주택조합은 화장동 임야 3만2000㎡에 558세대 22층~3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여수박람회장엔 있는 주택 홍보관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중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

시는 지난달 15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공예정 건설사 및 조합에 사업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토록 통지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공예정 건설사도 지난달 23일 약정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19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공정위 소비자과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

현 사업부지 소유자는 지난 2015년 9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5층 이상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을 신청했으며, 여수시의 반려처분에 따라 소유자는 지난해 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4월 기각됐다. 해당 사업부지 소유자는 지난해 8월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은 현재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조언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LG화학, 청년그룹과 '벚꽃 소풍' 성료

원도심 활성화와 다양한 행사

여수산단 대표기업 LG 화학이 후원하고 여수시 청년그룹이 주관한 거리축제 '벚꽃 소풍'이 지난 1일 여수시 한려동 일대에서 열렸다.

'벚꽃 소풍'은 여수지역 청년문화기획자들이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봄소풍을 주제로 기획한 축제다. 지역 청년들의 기회제공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LG 화학이 청년그룹·지역민과 함께 만든 행사다.

이번축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열린 'OH! CAROL' 축제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여수시 공화사거리~수정사거리 일대 벚꽃길에서 진행됐다.

소풍을 주제로 한 축제는 참여자들이 만든 벚꽃 속을 거닐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불거리, 줄길거리, 먹거리, 나눔거리, 짹거리 등 다섯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불거리는 벚꽃 포토존, 어른이 아트쥬, 어른이 내맘대로 낙서담벼락, 밤에 피는 벚꽃 야간조명 등이 펼쳐졌고 줄길거리는 어른이 명랑운동회, 길바닥 게릴라 장기자랑, 프라이빗 콘서트, 퍼포먼스 핑크 플래시몹 등이 마련됐다. 먹거리로는 벚꽃 김밥·분홍 단무지 도시락과 핑크핑크 아이스크림, 분홍 분홍 솜사탕 등 분홍 벚꽃을 상징하는 음식이 제공됐고 핑크빛 종고나라, 어른이날 선물가게 등 나눔가게도 열렸다. 또 주민 화합과 참가자들의 교감을 위한 다양한 짹거리 이벤트도 진행됐다.

홍충철 LG 화학 여수공장 HR담당은 "벚꽃소풍 거리축제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청년들과 지역민, 지역기업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함께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청년문화 조성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이윤이 발생됩니다.

제품의 특징

- ▶ 육즙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러움.
- ▶ 여러 잡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숯향(불맛)이 살아있다.
- ▶ 냉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 가정집(남녀노소)
- ▶ 팬션/콘도
- ▶ 닥시터, 야유회
- ▶ 캠핑시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드세요!
반찬으로, 간식으로!!